

# 국립중앙박물관, 더 편해지고 풍성해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주요 전시업무계획 발표  
개관 9시 30분 폐관은 5시 30분  
3·6·9·12월 첫째 월요일 휴관  
관람객 급증에 불편 없게 조정

'시즌 하이라이트' 기획전 통해  
더 많은 문화유산 소개하기로  
6~9월 국내 최초 태국 미술전  
美·日·英·스위스와 협업 추진

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어린이박물관은 2029년까지 현재 규모(약 2539㎡)의 약 2배인 4950㎡ 규모로 확장 건립할 예정이다.

또 전체 소장품 약 43만점 가운데 2.1%인 9000점만 전시 중인 만큼 '시즌 하이라이트' 주제 전시, 전시품 교체 등을 통해 더 많은 문화유산을 소개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내외 다양한 역사·문화를 다룬 전시가 관람객과 만날 예정이다.

7월에는 먹거리 문화의 원형과 변천을 조명하는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이 열리며, 국내 최초로 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는 6~9월에 선보인다.

상설전시실 역사의 길에서는 '대동여지도'를 전시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실감 영상을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스위스 취리히미술관, 영국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V&A) 박물관,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과 협업하는 전시도 준비 중이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5월에는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신라를 조명하는 특별전도 소개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을 모은 국의 순회전시는 미국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3월7일~7월5일)와 런던(10월1일~내년 1월31일)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몽골 국립박물관 등과 공동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황해도 지역 무덤, 함경북도 웅기 송정리 패총 등 북한 지역 출토품도 연구할 계획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026년은 박물관이 국민의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그 경험을 세계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600만 관객 돌파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다. 3 왼쪽부터 13세기 제작된 견는 붓다 조각상, 16~17세기 제작 왕의 상징물과 옥좌 모형. 4 영국 빅토리아앤드앨버트(V&A)박물관 전시실. 연합뉴스·국립중앙박물관

지난해 K컬처 바람을 타고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 시간을 일부 조정한다.

상설 전시 유료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온라인 예약·예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3일 공개한 주요 업무 계획 자료를 통해 "3월 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문을 열었으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는 것이다. 시간 조정과 함께 박물관이 문을 닫는 휴관일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에만 휴관했으나 박물관은 3·6·9·12월 첫째 주 월요일 등 연 4회 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3월에 시간을 조정한 뒤 6월1일, 9월7일, 12월7일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관람객 급증에 따른 혼잡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650만 7483명으로, 직전 해인 2024년 연간 관람객(378만 8785명)의 약 1.7배에 달했다.

1945년 박물관(당시 국립박물관)이 개관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그러나 하루 최대 4만 4000명의 관람객이 몰리면

서 입장하기 전부터 길게 대기 행렬이 늘어서고 주차장, 식당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비전 아래 관람 방식과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50만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박물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 기능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물관은 상설 전시 유료화 논의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5월부터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과 함께 주관하는 기획전은 유료 관람으로 진행된다.

박물관은 올해 12월 중 관람객 정보, 박물관 이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유료화에 대비해 온라인 예약·예매, 비대면 전자 검표, 모바일 티켓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2027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 전시 유료화, 즉 '입장료' 도입 여부는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은 전시와 주요 시설도 단장하고 있다. 가

## BTS, 내달 21일 광화문 광장서 컴백 공연

넷플릭스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 생중계  
가수 단독 공연 최초... 또 하나의 이정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 달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발매 기념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연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타이틀곡을 비롯한 신곡 무대를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빅히트뮤직은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탄소년단은

해당 무대를 통해 한국 문화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0년 미국 NBC TV '더 투 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란'의 스페셜 주간 기획으로 경복궁 근정전과 경희루를 배경으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이로부터 약 5년 반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간이 될 전망이다.

광화문 광장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

여개국에 생중계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빅히트뮤직은 "신보 '아리랑'(ARIRANG)은 방탄소년단의 출발점, 정체성, 지금 이들이 전하고 싶은 감정을 담은 음반"이라며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첫 무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공연을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제작 과정을 다룬 다큐멘

터리 영화 'BTS: 더 리턴'(BTS: THE RETURN)도 다음 달 2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다큐멘터리는 3년 9개월 만에 신보를 발매하는 이들이 음악 작업을 하면서 겪은 고민과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담는다.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발매된다. 앨범에는 팀의 정체성, 그리움, 깊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룬 신곡 14곡이 수록된다.

글·사진=연합뉴스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예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